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역사가 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문제는 더욱 많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특히 전문분야 요원인 보건진료원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사업을 행정을 담당한 보건소행정계장님이 지도하는 데는 더욱 시작단계에서의 많은 문제가 운영과 관련되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본 연찬회를 통해서 전국 보건소를 대표한 행정계장님들과 실제 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대표 및 도 담당 관계관 및 관련부서대표와 학계 여러분의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토의를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400만 벽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본 발표 내용이 되기 바란다.

보건진료원의 역할기대 역할준비 역할수행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pp. 1~108, 1984. 6.

박 정 은

보건진료원은 일차 의료제도의 수혜자와 계획하는 자간에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진료원의 역할은 사업에 의하여 주어지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진료원이며 역할수행의 정도는 사업의 성공을 결정한다.

더욱이 수행의 정도는 진료원마다 개인차를 가지며 역할행위자인 진료원의 제특성은 역할행위에 영향을 준다. 역할이론, 기대이론, 동기이론, 사회화이론, 학습이론, 사회심리이론 등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고 이들 요인과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역할이론에서는 역할기대와 동기요소를 강조하였고 사회화 이론에서는 보다 넓은 견해를 가지고 역할준비 과정에서 사회화된 역할태도와 능력이 수행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료원의 역할수행 평가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들 도구를 사용하여 역할기대정도, 역할준비정도와 역할수행정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1983년 4월부터 9월까지 직무교육을 받은 진료원을 대상으로 하여 역할기대, 역할준비, 역할수행을 질문지 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횡단적 조사설계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간의 관계검정을 위하여 상관관계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역할기대는 연구자가 개발한 역할기대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할준비측정은 3측면에서 측정하였는데 1) 환자관리 능력은 Holzemer 등의 선다형 인지시험 2) 지각된 준비정도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역할준비 및 수행척도, 3) 투입된 노력정도는 연구자가 작성한 노력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역할수행 측정은 두차원 즉 수행빈도와 질적 수준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역할준비 및 수행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기대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 도구검정을 위하여 신뢰도 및 문항분석, 제변수간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설정된 가설검정을 위한 Pearson Correlation 분석,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 진료원의 인구문화적 특성과 제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하였고, 본 연구 결과와 다른 표면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제변수간의 상관관계의 비교 및 두연구의 상관관계의 차이 즉 감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Cohen의 Power Analysis를 하였다.

보건진료원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pp. 1~49, 1984. 6.

서 문 속

역할갈등은 어느정도 개인이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만 심한 경우 개인을 어렵게 하며 소속된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배제되어야 하며 해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업무수행시 보건진료원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역할갈등 정도와 역할기대자와의 갈등정도를 조사하여 보건진료원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1984년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동안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5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우편 설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자료분석은 전산 통계 처리를 하였으며 백분율, 표준편차, 분산분석, 순위상관계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이 경험하는 갈등정도의 평점척도는 2.92이며, 갈등요인은 제도적인 면에 대한 갈등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시간·자원·능력의 부족, 인간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 별로 갈등정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직무수행시 역할범위와 책임한계의 불명확」 「정보입수의 부족」 「승진가능성의 기회가 없어서」 「위임된 책임과 권한과다」 「업무수행시 판단에 위배되는 일을 해야 할 때」 등이었다.